[ 12월 10일 점심시간 ]

점심을 먹고 반에 돌아가자 한소원이 내게 말을 전했다.

“야. 은혜 선배가 학생회실로 모이래. 너한테 할 얘기 있다던데?”

“지금?”

“응. 점심 먹고 와달라 했어. 같이 가자.”

한소원과 함께 학생회실로 올라갔다. 내가 제일 늦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학생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채 “아! 선배 세트 왔다.”

한 “야! 누가 그렇게 부르래?”

채 “세트라 하면 귀엽지 않아요? 은혜 언니까지 같이 있으면 선배 디럭스 세트에요.”

도 “아하하. 귀엽다~ 선생님이 들어가면 뭐라 불러?”‘

채 “? 선생님은 선배가 아니잖아요.”

도 “그, 그렇구나….”

도래솔 선생님이 시무룩하게 바닥을 내려다봤다.

선생님. 제 마음속에서라도 세트에 포함해 드릴게요.

고 “으흠. 점심시간에 와달라고 해서 미안해. 더 미뤘다간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아뇨,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로 부르신 거예요?”

“저번에 못다 한 이야기 때문에.”

“어머. 다들 일찍 왔네.”

학생회실에 미리 와있던 은혜 선배는 아크릴 칠판 옆에 앉아있었다. 칠판에 적혀있던 글씨는 숫자 하나가 바뀌어있었다.

[ 학생회 회의 제2회 ]

한 “나는 또 뭐라고. 학생회 일이에요?”

고 “그래. 후배에 관한 일이지만 모두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었거든.”

“먼저 본인한테 물어봐야겠네. 밤에 따라다니면서 바뀐 게 있어?”

“바뀐 거라면 어떤 거요?”

“이젠 미지가 무섭지 않다던가?”

“......어.”

“후배가 첫날 밤에 따라 나갈 때는 약간은 무서워했잖아?”

분명히 그랬다. 처음엔 다시 미지와 만난다는 생각에 되게 긴장하고 떨렸는데.

어느새인가 별로 두렵지 않아졌다.

“후후.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나 보네. 혹시라도 없었으면 걱정이었는데.”

“사실 미지는 쓰러뜨리면 쓰러뜨릴수록 두렵지 않아지거든.”

“우리가 미지와 싸워가면서 몸으로 알게 된 정보야. 미지를 쓰러뜨릴수록 두려움은 줄어들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미지는 싸워볼 만한 상대로 바뀌기 시작했지.”

은혜 선배가 진지하게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번에 말했던 미지를 쓰러뜨리는 게 미지에게서 벗어난다고 생각한 이유.”

“그게 바로 이거 때문이야.”

“나는 미지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극복한 순간, 미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

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후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

“후배는 도래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

“네. 점심시간에 들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도래솔 선생님이 더는 미지를 못 보고, 등불도 약해진 이유.”

“선생님이 미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서 그런 거예요?”

“응. 실제로 도래솔 선생님은 미지를 거의 무서워하지 않으셔.”

한 “래솔 선생님이 미지 쫓아다니면서 싹 다 쓸고 다녔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좀 대단하네.”

그 괴물같이 생긴 것들을 해맑게 웃으며 쫓아가는 도래솔 선생님을 상상하니 대단하긴 했다.

도 “에헴. 선생님은 어른이잖니!”

“...거울이 더 슈슉 하지 않는 건 아쉽긴 해두.”

“으흠. 그래서 후배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은혜 선배는 안심한 듯이 살포시 웃었다.

“다행이야. 후배도 미지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 모양이네.”

한 “제가 말했잖아요? 보통 파티면 경험치는 같이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다고요.”

“......경험치?”

은혜 선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웠다.

“네. 같은 파티 소속이면 누가 잡아도 경험치가 들어오거든요.”

채 “소원 언니! 그건 게임이고요!”

“맨날 뭐만 하면 게임으로 생각하는 버릇! 언니 게임 중독이에요!”

한 “주, 중독은 아니거든!?”

“그냥 RPG에선 경험치 분배되는 게 당연하니까 얘기한 거야!”

도 “소원아. 진짜 게임 중독 같아서 선생님도 살짝 걱정되려고 그래.”

한 “네에!? 래솔 선생님까지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하거든요!?”

도 “그…. 게임 중독 상담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무실로 오렴.”

한 “그니까 게임 중독 아니라고요!”

투닥대는 셋을 무시하고 은혜 선배는 내게 말을 걸었다.

“그래도 후배가 직접 미지를 쓰러뜨린 건 아니라 걱정이네. 우리보다 영향이 적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아뇨.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소원이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한 “거봐! 쟤도 게임 중독 아니라잖아!”

“아니. 그거 말고. 경험치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밤에 돌아갈 때 일인데요.”

얼마 전 밤. 학생회 활동을 마치고 돌아갈 때, 미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선글라스를 쓴 마냥 눈에 구멍이 커다랗게 뚫린 귀신. 나를 보고는 뛰어왔지만, 아무렇지 않게 따돌려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왜 나는 혼자인데도 무서워하지 않았지?

어쩌면 내가 쓰러뜨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조차 했다. 물론 위험할 것 같아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이 준 것뿐만 아니라…. 해볼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채 “제가 미지랑 여러 번 싸웠을 때 느낀 기분이랑 같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선배는 직접 싸운 것도 아니고, 아직 몇 번 안 싸웠는데 왜 벌써 그래요?”

“그러네. 그건 새로 생각해볼 문제야.”

“그래도 일단 후배가 미지를 쓰러뜨린 효과가 나오는 걸 봤으니 안심해도...”

“나 알 것 같아.”

은혜 선배의 말 도중에 한소원이 뭔가 번뜩였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얘는 막 시작해서 레벨이 낮은데, 우리는 좀 됐으니까 레벨이 높을 거 아냐.”

“비유하자면 우리가 얘를 레벨 높은 사냥터에서 쩔해주는거 아냐?”

“......그, 소원아.”

한소원의 말에 은혜 선배가 복잡미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몇 번이나 열렸다 닫히며 말을 고심하던 은혜 선배는 한소원에게 최대한 상냥한 웃음을 지어줬다.

“게임은 좀 줄이자?”